

■대선후보 박·문 캠프가 본 초반 판세

“박, 2~5%P 정도 앞서” 공감

쇄신카드·TV토론 중대 변수로
오늘 안철수 해단식 메시지 주목

제18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주말을 보낸 2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양쪽 모두 '2~5%포인트 정도 차이로 박 후보가 앞서고 있다'는 동일한 판세 분석을 내놓았다. 때문에 양측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3일에 있을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의 '진심캠프 해단식'에서 나올 메시지와 양후보 측이 향후 대선 판도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.

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나름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. 양측의 중앙선거대위 대변인은 “전체 판세는 우리가 약간 우세한 것 같다”면서 “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안 전 후보의 중도 사퇴 이후 박 후보가 문 후보보다 2~3%포인트 앞서고 있다. 이 수치가 큰 변화없이 꾸준한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 선대위 다른 관계자도 “안 후보 사퇴 이후 최근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, 현재 박 후보가 문 후보를 3%포인트 앞서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”고 말했다. 이 관계자는 또 “문 후보가 처음 강세를 보였던 부산에서 지지율이 30% 중반대로 하락했고, 수도권에서 박·문 두 후보가 비슷한 지지율을 나타내고, 충청·강원에서 박 후보 우세 현상이 지속돼 초반 판세가

유리하게 조성됐다”라고 설명했다. 민주당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안 전 후보의 지지를 고대하고 있다. 특히 당 안팎에서는 터닝포인트가 될만한 쇄신책을 하루빨리 내놓지 않을 경우 현재 판세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문 후보가 고강도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. 다른 관계자는 “당 자체 여론조사 내에 있기 때문에 뒤지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바깥 불어 추격하는 뺑뺑이”라면서 “지지층이 결집해 있고 이후에 문 후보의 정책과 비전이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”고 말했다. 박근혜 후보 선대위 한 인사는 “안 전 후보가 문 후보 지지 활동을 본격화할 경우 역전당할 수도 있다. 더욱 확실한 우위가 필요한 시점”이라고 분석했다. 문재인 후보 캠프 관계자도 “안 전 후보가 지지를 본격화하면 3~5%포인트 정도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다”면서 “하지만, 그 이상의 지지율 상승이 요구된다”고 말했다.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고강도 검찰개혁안 발표

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2일 검찰에 대해 일제히 고강도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. 박 후보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문 후보는 검찰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비(非) 법조계 인사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.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▲검찰 권한 축소·통제 강화 ▲검찰 인사제도 개혁 ▲비리·부적격 검사 퇴출 ▲검·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을 대선 공약으로

제시했다. 박 후보는 검찰 권한 축소·통제 강화로 “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”며 “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”고 밝혔다. 박 후보는 특히 “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하겠다”며 “위원회 구성은 외국의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▲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인사제도 쇄신 ▲검찰권력 통제를 위

한 고강도 개혁 ▲검찰의 자정능력 회복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공약했다. 문 후보는 검찰총장 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. 또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고, 검사장급 인사는 이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도록 했다. 특히 차관급 검사장급 이상 54명의 고위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는 한편 검찰청 예산 독립,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를 약속했다. /이종행기자 golee@kwangju.co.kr



대선후보 TV·라디오 연설

박근혜·문재인 각각 44회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TV·라디오 방송 연설 일정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. 선관위가 각 후보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,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각각 법정 최대횟수인 44회를 신청했고,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1회를 신청했으며 나머지 후보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. 이에 따라 박 후보의 첫 TV 연설은 2일 밤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20분간 KBS 1TV를 통해 사전 녹화본이 방영된다. 박 후보의 첫 라디오 연설은 MBC를 통해 3일 오후 1시 37분부터 20분간 청취할 수 있다. 문 후보의 첫 TV연설은 2일 밤 9시 40분부터 10시 20분간 KBS1을 통해 사전 녹화본이 방영된다. 첫 라디오 연설은 MBC를 통해 3일 오후 5시 36분부터 20분간 청취할 수 있다. /이종행기자 golee@kwangju.co.kr

한화갑 “호남 인사탕평 약속한 박근혜 지지”
“민주당은 날 용도 폐기했다” 씩씩한 소회도

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씩씩한 소회를 털어냈다. 한 전 대표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박 후보 지지에 대해 “무당파이자 자연인으로 판단컨대 박 후보가 가장 준비가 잘 된 후보라고 평가한다”며 “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정치에 입문한 지가 1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”고 밝혔다. 한 전 대표는 이어 “과거 유신시절 박정희 정권 퇴진을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목숨을 걸고 투쟁했으며 투옥된 바 있다”며 “박 후보나 새누리당에 무엇을 바라고 지지 선언을 한 것은 아니며 새누리당에 입당하거나 선대위 참여도 하지 않을 것”이라며 박 후보



지지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했다. 한 전 대표는 “최근 박 후보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인 박정희 정권 당시 호남에 대한 소외와 차별에 대해 죄송함과 함께 책임감을 나타냈다”며 “박 후보는 그 자리에서 유신시절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나서겠다는 약속과 함께 호남에는 인사탕평과 경제적 도약을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”고 밝혔다.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 전 대표는 “민주당은 사실상 한화갑을 ‘용도폐기’했다.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지 요청을 하지 않았다”

여 ‘보수대연합’ 가속화
호남 ‘DJ표’ 모을까

김영삼(YS) 전 대통령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. 또 김중철 전 자민련 총재와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도 박 후보 지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.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사당구 서부버스터미널에서 열린 박 후보 지원 유세에서 “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”고 전하고 “김중철 전 총리와 심대평 전 대표도 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”고 말했다. 그러면서 “호남의 대표적 정치인인 한화갑 전 대표도 박 후보 지지를 약속했다”고 덧붙였다.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“YS가 지난 24일쯤 내게 전화해 박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”면서 “이와 관련해 삼도동맹을 대표하는 민주동우회의 회원들이 3일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YS의 뜻을 받아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 /이종행기자 golee@kwangju.co.kr

박근혜 수행 차량 사고...1명 사망

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측근인 이춘상 보좌관이 탄 승합차가 강원 횡천에서 교통사고가 나 이 보좌관이 숨지고 일행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. 강원 횡천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경 횡천군 두촌면 천현리 철

정검문소 인근 44번 국도에서 카니발 승합차(운전자 임모씨·36)가 앞서 가던 차량을 피하하다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전진주 등을 들이받았다. 이 사고로 이 보좌관이 숨졌다. 또 함께 타고 있던 김우동 홍보팀장을 비롯해 유모(45)씨, 박모씨, 이모씨,

운전자 임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횡천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김 팀장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. 이 보좌관이 타고 있던 카니발 승합차는 이날 오전 강릉·속초·인제지역 유세 일정을 마치고 춘천으로 향하던 박근혜 대선 후보의 차량을 뒤따라 이동하던 중이었다. 경찰은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. /이종행기자 golee@kwangju.co.kr

신용카드 한도 구매
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!

상품권 매매
매입

최고가 매입, 최저가 판매
법인개인 출장가능!

현금필요하신분
3분이내 즉시해결!

H. 010-2082-6353
TEL. 062)383-6364

독일보청기... “행복한 소리”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. ◆ 다채널 방식 / 100% 디지털 고막형 ◆ ▶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. ▶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. ▶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. ▶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. ▶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. ▶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. ▶반영구적입니다. ▶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※ 중고,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(타사 보청기 환영)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티비빌 건너편 6층 (광명빌딩 603호) ☎ 062)222-1510 야간 : 062)573-5106

부동산 경매,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-236-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-73 2층 (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) 또는 (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) 최고수익률 / 세금계산서발급(양도세감면) / 신속한명도 / 정확한권리분석 / 최상의대출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-5879-0005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-8227-7759

수기동 [근린시설 4층] 대652㎡, 건2387㎡, 감정가 14억 최저가 4억5천	숙박시설 [치평동] 대704㎡, 건2042㎡,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
나주남평 [주유소] 대4428㎡, 건553㎡,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6억8천	신안안해 [횡정, 판매시설] 대4706㎡, 건1123㎡, 감정가 18억 최저가 10억
전북김제 [물류센터] 대8076㎡, 건5004㎡, 감정가 25억 최저가 8억	전주시덕진구[유류주점] 대665㎡, 건988㎡, 감정가 11억4천 최저가 5억8천
화순이양 [공장] 대6536㎡, 건2056㎡, 감정가 9억8천 최저가 2억8천	보성읍 [상가] 대685㎡, 건763㎡, 감정가 7억2천 최저가 1억5천
충장로 [근린주택] 대215㎡, 건306㎡, 감정가 4억6천 최저가 2억	목포대양동 [수양관] 대1786㎡, 건408㎡, 감정가 4억8천 최저가 1억7천

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-8567-4600

- 12월중순open 예정인 (주)솔향기맑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한다.
- 찬모(여)2명, 설것이(여)1명, 홍서빙6명, 매니저(남, 여)2명, 매점(여)1명, 경리(여)1명, 영업부(남, 여)2명
- 복리후생 : 4대보험, 퇴직금, 월4회휴무, 급여 :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
- 근무처 : 나주시남평읍 풍림리 171번지 서류점수시 면적, 상담가능(시간외) H.010-7570-7525